

【P4-24】

유전체역학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별 식습관과 맛 선호도

안윤진, 박찬, 오경수, 민해숙, 이지은, 박선주, 김규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

본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 유전체역학연구의 일환으로 조사된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 주민의 식습관과 맛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동 역학연구는 농촌지역(안성)과 중소도시지역(안산)에 거주하는 40-69세 남녀 10,038 명(남자 4,762 명, 여자 5,276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1년부터 2년간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2003년부터 2년을 주기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습관에 대한 설문 중 정규식사 횟수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3 끼를 먹는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안성 92.6%, 안산 80.9%), 평균 2.87끼니를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르는 끼니는 두 지역 모두 아침 식사가 가장 많았고(안성 49.7%, 안산 71.6%) 간식 횟수는 평균 1.2 회였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100 %의 사람이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도시지역은 31 %의 사람들이 간식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매식 횟수를 물었을 때, 매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약 56 %였으나, 매일 1끼 이상 매식을 한다고 답한 사람도 16 %가 넘었다. 매일 한 끼 이상 매식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중소도시지역이 22.1 %로 농촌지역(9.94 %)보다 높았다. 혼자서 식사(독식) 빈도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는 답변이 44.4 %, 매일 1끼 이상이라는 답변이 34.4 %였으며, 매일 한 끼 이상 독식을 하는 사람의 수는 중소도시지역이 많았고(안성 27.5 %, 안산 41.2 %), 독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의 수는 농촌지역이 많았다(안성 49 %, 안산 39.5 %). 조리기름 및 양념기름의 종류 분석에서 콩기름과 옥수수기름을 조리기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양념기름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이 옥수수기름을 많이 사용하고(50.8 %),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9.4 %). 양념기름으로는 농촌지역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참기름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월등히 많았으나(57.8 % 대 12.5%), 중소도시지역에서는 혼합사용과 참기름 단독사용의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48.3 % 대 41.2 %). 맛 선호도는 단 음식, 짭짤한 음식, 매운 음식, 새콤한 음식, 기름진 음식의 선호도를 5단계로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점수화 하여 비교한 결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3.1 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2.5 점으로 가장 낮았다.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의 선호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은 농촌지역이 높았으며, 매운 음식과 새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향은 중소도시가 높았다 ($p < 0.0001$). 식습관과 맛에 대한 선호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고, 이는 각 지역의 인구집단 특성(성별, 연령)과 직업 등 경제사회적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러한 식습관의 차이는 추후 질병의 발생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